CCC NK 사역부

통 일 순 장 학 교 기 본 교 재

통일을 준비하는 청년

성경적 세계관으로 읽는 통일,
북한의 현실과 지식, 그리고 나의 전공

CCC NK사역부 · 2026년 11월

제안 시안

INTRO

이 교재에 대하여

통일을 '언젠가 올 일'이 아니라 '지금 준비하는 일'로 바꾸기 위한 교재입니다.

CCC NK사역부는 모든 사역의 초점을 통일 이후 북한 청년사역 준비에 맞추고 있습니다. 순장들을 통일 이후 북한 현장에서 섬길 **통일봉사단**으로 세우고, 입양한 북한 대학 앞에 **북한청년센터**를 세우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그 꿈을 위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공부하는 책입니다.

교재는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으로 통일을 읽고(1부), 북한의 현실을 보고(2부), 북한을 아는 지식을 쌓고(3부), 내 전공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계획을 세웁니다(4부). 각 부는 세 단원, 모두 열두 단원입니다.

누가 쓰나요

- 통일순장학교 정규 과정 (12주)
- 통일순 소그룹 학기 과정
- 한국교회 청년부 공유 과정 (6주 압축)
- 후원교회 찾아가는 강의의 보조 교재
- 북한청년센터 남한 모델의 봉사자 교육

한 단원의 구성

- **학습 목표 · 여는 질문**
- **읽기** — 함께 읽는 글
- **성경** — 함께 찾아 읽는 말씀
- **토의** — 함께 나누는 질문
- **워크시트** — 쓰면서 정리하기
- **한 걸음 · 기도** — 삶으로 옮기기

틀 이 교재가 기르려는 힘: 통일역량

KNOWLEDGE · 지식

북한의 역사·체제·사회·주민 생활을 알고, 내 전공의 눈으로 남북을 비교하는 힘

SKILL · 기술

남한과 다른 여건에서도 내 전공으로 실제 문제를 풀어내는 실무 능력

ATTITUDE · 태도

북한 주민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이웃으로 맞는 환대와 존중

원칙 이 교재가 지키는 약속

- 수치와 사실에는 출처를 밝힙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 탈북민 이웃과 북한 주민을 존엄한 사람으로 그립니다. 실제 인물의 이름·사진·사연은 싣지 않습니다.
- 북한 안에서의 활동처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 북한청년센터, 카페 노스토스, 뉴코리아교회와의 연합은 모두 **제안 단계**의 계획입니다.

HOW TO

이 교재로 공부하는 법

모임 한 번의 모임 (90분 기준)

순서	시간	하는 일
여는 기도·여는 질문	10분	지난주 '한 걸음' 나눔, 여는 질문에 짧게 답하기
읽기	20분	함께 읽는 글을 소리 내어 돌아가며 읽기, 밑줄 친 문장 나누기
말씀	15분	성경 본문을 펴서 읽고, 요지와 비교하기
토의	25분	질문 2~3개를 골라 소그룹 토의
워크시트	15분	각자 쓰고 짝과 나누기 (남은 부분은 과제)
한 걸음·기도	5분	이번 주 실천을 정하고 함께 기도

과정 과정별 단원 배치

과정	기간	쓰는 단원
통일순장학교 정규 과정	12주	1~12단원 전체. 1주차 수업 전 점검표(시작) → 10단원 중간 성찰 → 부록 A 점검표(마침). 수료 후 통일봉사단으로 섬김(제안)

과정	기간	쓰는 단원
통일순 학기 과정	한 학기	1~12단원. 순장이 진행자
교회 청년부 공유 과정	6주	1·2·5·6·10·11단원 (성경-현실-전공 핵심), 6주차 끝에 12단원 센터 비전 소개
후원교회 찾아가는 강의	1회 90분	강의 메뉴별 보조 단원: ① 센터 비전 1·3·12 / ② 먼저 온 이웃 5·6·9 / ③ 내 전공 10·11
센터 봉사자 교육	4주	2·6·9·11단원 (환대-만남-소통-전공 섬김)

자세한 운영 방법은 함께 만든 「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 보고서」를 보세요.

진행자 순장·진행자에게

- 정답을 알려 주기보다 질문을 열어 두세요. 토의는 모두가 한 번 이상 말하도록 이끕니다.
- 정치적 입장이 갈리는 주제는 사실과 의견을 나누어 정리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게 합니다.
- 탈북민 참여자가 있을 때는 개인의 경험을 말하도록 요청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누는 만큼만 듣습니다.
- 성경 본문은 먼저 원래의 뜻(누구에게, 무엇을 말했는가)을 읽고 그다음 오늘의 적용으로 넘어갑니다. 한반도의 통일이나 센터 설립을 성경의 직접 예언 성취나 구원의

조건처럼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원마다 끝에 있는 '진행자 메모'를 참고하세요.

- 워크시트는 다음 주에 다시 펼쳐 보게 하세요. 기록이 쌓이면 그것이 통일 준비의 포트폴리오가 됩니다.

CONTENTS

차례

들어가며	이 교재에 대하여 · 이 교재로 공부하는 법
PART 1	**성경으로 보는 통일**
01단원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02단원	나그네를 환대하는 공동체
03단원	무너진 성벽 앞의 느헤미야, 본향을 향한 귀향
PART 2	**북한의 현실**
04단원	분단 80여 년, 한눈에 보는 남북 이야기
05단원	북한 주민의 오늘
06단원	먼저 온 이웃, 탈북민과 함께 살기
PART 3	**북한을 아는 지식**
07단원	북한의 정치와 이념 이해하기

08단원	북한의 경제·사회·교육, 그리고 대학
09단원	같은 말, 다른 말 — 남북의 언어와 문화
PART 4	**전공으로 준비하는 통일**
10단원	통일의식에서 통일역량으로
11단원	전공별 준비 지도
12단원	북한청년센터와 나의 자리
부록	**마치며 · 통일역량 점검표(마침) · 용어 풀이 · 함께 읽을 자료 · 진행자 안내**

START

과정을 시작하며 · 통일역량 점검표 (시작)

1주차 수업 전에 지금의 나를 솔직하게 체크하세요.
10단원에서 중간 성찰을, 부록 A에서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영역	점검 문장	1 ← 2 · 3 · 4 → 5
지식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 전공 분야의 북한 현황을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북한 관련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술	내 전공 기술을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맞게 바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문화권 사람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탈북민 이웃과 함께 실제 문제를 풀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영역	점검 문장	1 ← 2 · 3 · 4 → 5
태도	북한 주민을 동등한 이웃으로 대하는 말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통일을 위해 꾸준히 기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 = 전혀 아니다 · 5 = 매우 그렇다

이 과정을 통해 기대하는 것

점검표는 자기보고입니다. 점수보다 '어디가 약한지 알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PART 1

성경으로 보는 통일

통일을 정치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화해와 회복의 이야기 안에서 읽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 일을 붙드는지,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습니다.

01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02 나그네를 환대하는 공동체

03 무너진 성벽 앞의 느헤미야, 본향을 향한 귀향



UNIT 01

화해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통일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해에서 시작됩니다.

학습 목표

- 고린도후서 5장의 '화해의 직분'이 무엇인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다.
-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진 '막힌 담'(엡 2장)을 한반도의 분단과 연결해 생각해 본다.
- 통일을 정치적 사건만이 아니라 신앙의 부르심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갖는다.

여는 질문

'통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나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 단어에 기대가 담겨 있나요, 부담이 담겨 있나요?

읽기 함께 읽는 글

우리 세대에게 통일은 자주 '먼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학교에서 배운 당위는 기억나지만, 그것이 내 진로나 신앙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통일 인식은 다른 세대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2026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39.0%였고, 20대는 25.2%, 30대는 27.0%에 머물렀습니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거나 통일에 관심이 없다는 응답을 합하면 20대 55.1%, 30대 55.9%였습니다.[1]

그런데 성경은 화해를 그리스도인의 선택 과목으로 두지 않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한 직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씁니다. 화해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일을 맡은 사신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중간에 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졌다고 말합니다. 당시 두 집단 사이의 적대는 오늘 남북 사이의 거리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바울은 그 둘이 '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한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그림을 붙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특정한 통일 방식이나 시기를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교재도 그것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은 어떤 길로 한반도의 변화가 오든, 그 안에서 화해를 일구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NK사역부가 통일 이후 북한 현장에서 섬길 '통일봉사단'을 준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고린도후서 5:17-20**
> 그리스도 안의 새 피조물, 하나님이 맡기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 **에베소서 2:14-18**
>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며,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막힌 담을 허셨다.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바울이 말한 '사신'(대사)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해의 사신이 오늘 한국 청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2. 남과 북 사이의 '막힌 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도, 감정, 기억, 편견으로 나누어 적어 봅시다.
3. 통일에 대한 나의 무관심이나 부담감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솔직하게 나누어 봅시다.

워크시트 1 · 막힌 담 지도

막힌 담의 종류	구체적인 예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 수 있는 첫걸음
제도		
감정·기억		
편견·말		

한 걸음

이번 주에 북한이나 통일과 관련된 뉴스 한 편을 읽고, 그 소식을 놓고 한 문장 기도문을 써 오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화해의 하나님, 우리를 먼저 화해시키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남과 북 사이의 막힌 담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청년으로 세워 주십시오.

진행자 메모

준비물 성경(개인), 최근 북한·통일 뉴스 1편 출력본, 필기구

이끄는 방향 '사신'은 자기 뜻이 아니라 보낸 분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과 에베소서 2장의 화해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화해입니다. 한반도에는 그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지, 본문이 남북통일을 직접 예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토의 3번 → 워크시트는 '제도' 한 줄만 함께 쓰고 나머지는 과제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오늘 배운 '화해의 직분'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

1)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6 통일의식조사 보도자료(2026-09-28). 한국갤럽, 2026년 7월 1~26일, 만 19~74세 1,200명 면접조사, 전체 표본 95% 신뢰수준 ±2.8%p. 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176276 (접속 2026-11-20)

UNIT 02

나그네를 환대하는 공동체

성경은 나그네와 이웃을 대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본다고 말합니다.

학습 목표

- 구약의 '나그네' 규정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환대의 원리를 찾는다.
- 시혜(베푸는 사람-받는 사람)와 환대(함께 사는 이웃)의 차이를 구분한다.
- 탈북민 이웃을 동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대하는 말과 태도를 연습한다.

여는 질문

낯선 곳에서 누군가에게 환대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이 가장 고마웠나요?

읽기 함께 읽는 글

레위기 19장은 이스라엘에게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낳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이유도 붙어 있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이스라엘의 환대는 자기 역사를 기억하는 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로 뒤집습니다. 이웃은 정해진 범위가 아니라 내가 다가가 되어 주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환대는 불쌍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일과 다릅니다. 시혜의 관계에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고정되지만, 환대의 관계에서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북한에서 온 이웃은 도움의 대상이기 전에, 다른 체제에서 살아남은 경험과 지혜를 가진 동료 시민입니다.

통일 이후 북한청년센터에서 섬길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도 이 태도입니다. 전공 실력이 뛰어나도 상대를 가르쳐야 할 대상으로만 보면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 단원은 그 태도를 지금, 남한에서 먼저 연습하자고 제안합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레위기 19:33-34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에서 거류민이었다.

누가복음 10:25-37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히브리서 13:1-2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시혜'와 '환대'의 차이를 내 경험 속 예로 설명해 봅시다.
2. 탈북민을 소개하거나 이야기할 때 무심코 쓰는 표현 가운데, 상대를 낮추거나 불쌍히 여기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우리 공동체(순, 청년부)가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데 서툰 부분은 무엇입니까?

워크시트 2 · 말 바꾸기 연습

무심코 쓰는 표현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예) "불쌍한 탈북자들을 도와줍시다"	

한 걸음

이번 주에 공동체 안에서 아직 잘 모르는 사람 한 명에게 먼저 식사나 차를 청해 보세요. 무엇을 느꼈는지 한 줄로 기록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나그네였던 우리를 받아 주신 주님, 우리가 이웃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먼저 환대하게 하소서. 북한에서 온 이웃을 동등한 형제자매로 맞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성경, 포스트잇(말 바꾸기 연습용)

이끄는 방향 시혜는 '내가 가진 것을 준다'에서 멈추고, 환대는 '상대를 내 삶의 자리에 맞아들인다'로 나아갑니다. 예: '도와준다' 대신 '함께한다', '불쌍한' 대신 '먼저 온 이웃'.

시간이 모자라면 히브리서 13장 읽기 → 토의 3번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이번 주에 바꿔 쓸 말 하나는?

UNIT 03

무너진 성벽 앞의 느헤미야, 본향을 향한 귀향

느헤미야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귀향(노스토스)'이라는 두 겹의 소망을 배웁니다.

학습 목표

- 느헤미야가 무너진 예루살렘 소식에 반응한 순서(울음-기도-계획-행동)를 정리한다.
- 에스겔 37장의 '두 막대기' 환상을 회복의 소망과 연결해 이해한다.
- '노스토스(귀향)'의 두 의미, 곧 고향으로의 귀향과 본향 천국을 향한 여정을 설명할 수 있다.

여는 질문

나에게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나 시간이어도 좋습니다.

읽기 함께 읽는 글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앉아서 울고, 여러 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머물지 않고 왕에게 나아가 구체적인 계획과 필요한 자원을 요청했습니다. 울음, 기도, 계획, 행동. NK사역부가 느헤미야기도회를 이어 온 이유도 이 순서를 닮고 싶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막대기 두 개를 들게 하십니다. 하나에는 유다, 하나에는 요셉(에브라임)의 이름을 쓰고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나뉜 백성이 다시 한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본문을 한반도에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지만, 나뉜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어 '노스토스(nostos)'는 귀향,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뜻합니다. NK사역부는 남한에서 먼저 시작하려는 북한청년센터 1층 카페에 이 이름을 붙이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는 고향을 떠나온 이웃이 언젠가 고향 북한으로 돌아가는 귀향, 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본향인 하늘나라를 향해 걷는 여정입니다(히 11:13-16).

두 귀향은 서로를 설명합니다. 우리 모두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 때, 고향을 떠나온 이웃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릴 수 있습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느헤미야 1:1-11**
> 무너진 성 소식,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

> **느헤미야 2:17-18**
>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 백성이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다.

> **에스겔 37:15-23**
>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듯 나뉜 백성이 한 나라가 되리라는 약속.

> **히브리서 11:13-16**
> 믿음의 사람들은 땅에서 나그네였고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했다.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느헤미야의 네 단계(울음-기도-계획-행동) 가운데 나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2. '노스토스'의 두 의미 가운데 어느 쪽이 지금 나에게 더 가깝게 느껴집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은 고향을 떠나온 이웃을 대하는 태도에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워크시트 3 · 나의 느헤미야 노트

01 내가 '무너졌다'고 느끼는 소식이나 현실

02 그 앞에서 드리는 나의 기도

03 작지만 구체적인 나의 계획

04 이번 달 안에 할 첫 행동

한 걸음

느헤미야기도회 또는 우리 순의 기도 모임에서 이번 주 워크시트에 쓴 기도를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우셨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이 땅의 아픔을 보며 울게 하소서. 기도에 그치지 않고 계획하고 움직이게 하시며, 본향을 향한 소망으로 이웃의 귀향을 함께 기다리게 하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성경, 느헤미야기도회 일정(있다면)

이끄는 방향 느헤미야서와 에스겔 37장은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뉜 것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울음-기도-계획-행동'의 태도를 배웁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통일을 성경의 예언 성취나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에스겔 37장 → 토의 3번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나의 느헤미야 노트에서 이번 달에 할 첫 행동은?

PART 2

북한의 현실

분단의 역사, 북한 주민의 일상, 그리고 먼저
남한에 온 탈북민 이웃의 삶을 차분히
살펴봅니다. 동정이 아니라 이해에서 출발합니다.

04 분단 80여 년, 한눈에 보는 남북 이야기

05 북한 주민의 오늘

06 먼저 온 이웃, 탈북민과 함께 살기



UNIT 04

분단 80여 년, 한눈에 보는 남북 이야기

큰 흐름을 알면 오늘의 뉴스가 다르게 읽힙니다.

학습 목표

- 해방과 분단, 전쟁, 정전에서 오늘까지의 큰 흐름을 연표로 정리한다.
- 남북 대화와 합의, 그리고 긴장이 번갈아 나타난 흐름을 이해한다.
-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 정죄가 아니라 화해의 준비임을 확인한다.

여는 질문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에게서 들은 분단·전쟁 이야기가 있습니까?

읽기 함께 읽는 글

1945년 해방과 함께 한반도는 38선을 경계로 나뉘었고,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전쟁이 일어나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가족과 헤어졌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멈춘' 상태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뒤 남북은 대화와 긴장을 오갔습니다.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2007년 10·4 정상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처럼 대화의 기록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무력 충돌과 핵·미사일 문제로 관계가 얼어붙은 시기도 길었습니다.

최근 흐름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북한은 2023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1] 통일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시기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화해는 늘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할 때는 확인 가능한 사실과 책임을 분명히 배웁니다. 그 위에서 같은 사건을 남과 북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르게 기억하고 배워 왔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진실을 덮는 화해는 오래가지 못하고, 차이를 모르는 만남은 쉽게 상처를 냅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한 식탁에 앉으려면 이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합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창세기 33:1-11**
> 형을 속이고 떠났던 야곱이 에서와 다시 만나 끌어안고 운다.

> **마태복음 5:9**
>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연표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사건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2. 같은 사건(예: 6·25 전쟁)을 남과 북의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게 배웠을까요? 그 차이가 만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3. 야곱과 에서의 화해에서 먼저 움직인 쪽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워크시트 4 · 나의 분단 연표

연도	남북 관계의 일	그때 우리 가족(또는 교회)은
1945		
1950-1953		
1991		
2000		
2018		
2023		
올해		

한 걸음

가족 중 한 분에게 분단이나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들은 이야기를 다음 모임에서 나누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기억합니다.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진 남과 북의 사람들이 언젠가 한 식탁에 앉는 날을 위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연표 큰 종이 또는 화이트보드, 가족 인터뷰 질문지

이끄는 방향 6·25 전쟁은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과 책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남북 주민이 같은 사건을 다르게 배워 왔다는 점을 함께 다룹니다. 진실과 화해는 서로를 밀어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창세기 33장 → 워크시트는 4개 연도만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연표에서 내가 처음 알게 된 사실 하나는?

---

1) YTN, 「北 김정은 '남북은 동족 아닌 적대관계…남한 영토 평정 준비 박차'」, 2023년 12월 31일.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311500047109 (접속 2026-11-20). 연표 연도는 국사편찬위원회·국가기록원 해설로 확인(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는 채택·서명 연도, 발효는 1992년).

UNIT 05

북한 주민의 오늘

체제가 아니라 사람을 봅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은 일하고, 사랑하고, 내일을 걱정합니다.

학습 목표

- 북한 주민의 일상(일, 학교, 먹거리, 정보)을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해한다.
- 북한 사회를 '체제'와 '주민'으로 구분해 보는 시각을 갖는다.
- 불확실한 정보를 다룰 때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을 익힌다.

여는 질문

북한 사람을 떠올릴 때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릅니까? 그 이미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읽기 함께 읽는 글

우리가 북한에 대해 접하는 이미지는 대개 열병식, 지도자, 미사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도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거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삽니다. 체제를 비판하는 일과 그 안의 사람을 존중하는 일은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야 합니다.

북한 주민의 삶은 국가가 정한 직장과 조직 생활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부 조사에서는 시장(장마당)이 생계와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외부 정보가 들어오는 흐름과 그것을 막는 통제가 함께 나타났습니다.[1]

북한 관련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같은 사건도 매체마다 다르게 전하고, 소문이 사실처럼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수치나 사건을 다룰 때 출처를 밝히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북한 소식을 나눌 때 '누가, 언제, 무엇을 근거로' 말했는지 먼저 살피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 기도할 때는 막연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체적인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나와 같은 나이의 대학생, 아이를 키우는 부모,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그들이 통일 이후 우리가 센터에서 만날 이웃입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마태복음 25:35-40**
> 주릴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대접한 것이 곧 주께 한 것이다.

> **잠언 31:8-9**
> 말 못하는 자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라.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체제'와 '주민'을 구분해서 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2. 최근 들은 북한 소식 하나를 골라 '누가, 언제, 무엇을 근거로' 말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3. 나와 같은 또래의 북한 대학생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고 나누어 봅시다.

워크시트 5 · 뉴스 출처 확인표

뉴스 제목(요지)	말한 사람·매체	날짜	근거(공식자료·증언·추정)	믿을 만한가?

한 걸음

또래 북한 청년 한 명을 상상하며 그를 위한 기도문을 써 오세요. 실제 인물의 이름이나 사연은 쓰지 않습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북녘 땅의 아침과 저녁을 아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일하고 공부하고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을 기억하소서. 우리가 그들을 체제의 그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웃으로 보게 하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최근 북한 관련 기사 2~3편(서로 다른 매체)

이끄는 방향 출처 확인 예시: '북한, 새 학기 시작' 기사라면 → 말한 곳: 어느 매체·기관인지 / 날짜 / 근거: 북한 관영매체 인용인지, 탈북민 증언인지, 기자의 추정인지 / 판단: 관영매체 인용은 북한 당국의 주장으로, 증언은 개인 경험으로 읽는다.

시간이 모자라면 잠언 31장 → 토의 3번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북한 소식을 나누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는?

---

1)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탈북민 6,351명 대상 2013~2022년 회고 조사). 2026년 북한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관찰은 아닙니다. https://www.unikorea.go.kr/web/books/bbs/bbs_0000000000000043/47387 (접속 2026-11-20)

UNIT 06

먼저 온 이웃, 탈북민과 함께 살기

통일은 이미 우리 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남한에 온 이웃과의 만남이 그 첫 현장입니다.

학습 목표

-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추이와 남한 정착 과정을 개략적으로 이해한다.
- 경제적 자립과 함께 관계와 문화 적응(사회적 자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한다.
- 탈북민 이웃과 만날 때 지켜야 할 존중과 안전의 원칙을 익힌다.

여는 질문

탈북민을 직접 만나 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만난다면 무엇이 가장 걱정되나요?

읽기 함께 읽는 글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이웃입니다. 통일부 집계로 2026년 6월 말까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모두 34,600명이고, 이 가운데 여성이 25,003명(72.3%)입니다. 이 숫자는 그동안의 누적 입국 인원이라 지금 남한에 사는 인원과는 다릅니다. 같은 시기 지역별 거주 통계로는 31,541명 가운데 20,639명(65.44%)이 서울·경기·인천에 살고, 현재 나이 기준으로는 10~39세가 8,863명(현재 연령 통계 32,505명의 27.27%)입니다.[1] 해마다 입국하는 인원은 해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연도별 입국 인원은 2020년 229명, 2021년 63명, 2022년 67명, 2023년 196명, 2024년 236명, 2025년 223명이었고, 2026년은 1~6월에 63명이었습니다.

남한에 온 탈북민은 정부의 정착지원 교육을 거친 뒤 각 지역에 거주하며 생활을 시작합니다.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는 일만큼 어려운 것이 말투와 생활 방식, 사람 사이의 관계에 적응하는 일입니다. 한지은·나건(2017)은 경제적 자립과 함께 '사회적 자립'이 필요하며, 두 자립의 공통 기반이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2]

그래서 교회와 청년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도가 다 채워 주지 못하는 일상의 관계입니다. 함께 밥을 먹고, 공부를 돕고, 진로를 같이 고민하는 친구가 되는

일입니다. NK사역부가 이어 온 탈북민 청소년 멘토링도 이런 관계 위에 서 있습니다.

만남에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말하지 않는 탈북 과정이나 북한의 가족 이야기를 캐묻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거나 SNS에 올릴 때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신변 안전을 위해 얼굴과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무엇보다 '도와주러 왔다'는 태도보다 '함께 살아가자'는 태도로 다가갑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룻기 2:8-12**
> 이방 여인 룻을 존중하고 보호한 보아스,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 **신명기 10:18-19**
>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주시니,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라.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자립은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공동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2. 보아스가 룻을 대한 방식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3. 탈북민 이웃과의 만남에서 지켜야 할 원칙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특히 놓치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워크시트 6 · 만남의 약속 카드

☐ 상대가 먼저 꺼내지 않은 탈북 과정·가족 이야기는 묻지 않는다.

☐ 사진·영상은 동의를 먼저 구하고, 얼굴·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 '불쌍하다', '도와준다'는 말 대신 '함께', '같이'를 쓴다.

☐ 북한 말투나 생활 습관을 웃음거리로 삼지 않는다.

☐ 약속한 시간과 횟수를 지킨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는다.

☐ 어려운 상황(건강·법률·안전)은 혼자 해결하려 하지 않고 담당 간사와 상의한다.

우리 순이 덧붙이고 싶은 약속

이름(서명) _____ 날짜 _____

한 걸음

만남의 약속 카드에 서명하고, 우리 순이 덧붙인 약속 한 가지를 함께 정하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룻을 품으신 하나님, 먼저 우리 곁에 온 이웃을 존중과 우정으로 맞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사진과 호기심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지켜 주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만남의 약속 카드(워크시트 6) 인원수만큼

이끄는 방향 누적 입국 인원과 현재 거주 인원은 다른 통계입니다. 숫자를 외우기보다 '이미 우리 곁에 이웃이 있다'는 사실과 만남의 원칙에 집중합니다. 탈북민 참여자가 있으면 개인 경험을 묻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신명기 10장 → 토의 2번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약속 카드 가운데 우리 순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약속은?

---

1)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26.6월말 입국자 기준)」·「현재 연령별 현황」·「지역별 거주 현황」 공식 자료. https://hanaportal.unikorea.go.kr/hanaportal/Institution/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08&mode=view&cntId=65 (접속

2026-11-20)
2) 한지은·나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력 향상 방안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7, pp. 27-33.

PART 3

북한을 아는 지식

북한의 체제와 사회, 교육과 대학, 말과 문화를 공부합니다. 함께 일할 사람들의 세계를 아는 것이 섬김의 첫 준비입니다.

07 북한의 정치와 이념 이해하기

08 북한의 경제·사회·교육, 그리고 대학

09 같은 말, 다른 말 — 남북의 언어와 문화



UNIT 07

북한의 정치와 이념 이해하기

함께 일할 사람들이 어떤 생각의 틀 속에서 자라 왔는지 알아봅니다.

학습 목표

- 북한 체제의 기본 구조(조선노동당, 최고지도자 중심 체제)를 개략적으로 설명한다.
- 주체사상이 주민의 생활과 교육에 미친 영향을 이해한다.
- 체제 비판과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함께 지키는 대화 태도를 익힌다.

여는 질문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배워 온 생각 가운데, 커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있습니까?

읽기 함께 읽는 글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국가와 사회 전반을 이끄는 체제이며, 최고지도자를 중심으로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체사상과 그 뒤에 덧붙여진 지도 이념은 학교 교육, 직장과 조직 생활, 일상의 언어에까지 깊이 스며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북한 사람들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의 세계관 안에서 자란 사람에게 그 틀은 '생각'이라기보다 '공기'에 가깝습니다. 다른 세계를 만났을 때 혼란과 저항, 상실감이 함께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상 숭배와 인간의 신격화를 분명히 거부합니다(출 20:3). 동시에 그 체제 아래 살아온 개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고, 그 이유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딤전 2:1-4).

통일 이후 센터에서 만날 청년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배워 온 것을 비웃거나 몰아세우면 대화는 거기서 끝납니다. 질문하고, 듣고, 내가 믿는 것을 내 삶으로 보여 주는 편이 훨씬 오래 갑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출애굽기 20:2-3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디모데전서 2:1-4

모든 사람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로마서 12:17-21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생각이 아니라 공기처럼' 굳어진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2. 체제를 비판하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충돌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3. 나에게도 '공기처럼' 당연했다가 신앙 안에서 다시 보게 된 생각이 있습니까?

워크시트 7 · 듣는 대화 연습

상황	몰아세우는 반응	질문하고 듣는 반응
상대가 지도자를 존경한다고 말할 때		
상대가 남한 사회가 차갑다고 말할 때		
상대가 교회에 대해 오해를 말할 때		

한 걸음

이번 주 대화에서 내 의견을 말하기 전에 질문을 두 번 먼저 해 보는 연습을 하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북한의 지도자들과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죄보다 이해를, 논쟁보다 삶의 증거를 택하게 하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역할극 상황 카드 3장(워크시트 7의 상황)

이끄는 방향 듣는 대화 예: 상대가 '지도자를 존경한다'고 말하면 → 반박 대신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 마음이 지금은 어떤가요?'처럼 묻고 듣습니다. 우상화를 거부하는 신앙과 개인을 존중하는 태도는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로마서 12장 → 토의 3번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오늘 연습한 '질문 먼저' 문장 하나는?

UNIT 08

북한의 경제·사회·교육, 그리고 대학

북한청년센터는 북한의 대학 앞에 세워질 꿈입니다. 그 대학과 청년들을 먼저 알아봅니다.

학습 목표

- 북한 경제와 사회의 큰 특징(계획경제, 시장의 확산, 지역 격차)을 이해한다.
- 북한의 교육 제도와 대학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안다.
- '북한 대학 입양'과 북한청년센터의 비전을 설명할 수 있다.

여는 질문

내가 다니는 대학 앞에 어떤 공간이 있으면 청년들에게 힘이 될까요?

읽기 함께 읽는 글

북한 경제는 국가 계획과 시장 거래가 함께 움직입니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통일부 조사에서는 평양과 다른 지역 사이에 공적 서비스를 누리는 정도의 차이도 관찰되었습니다.[2]

북한의 학제는 김정은 시기에 바뀌었습니다. 소학교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었고, 기존 중학교 6년은 초급중학교 3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나뉘어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이 되었습니다.[1] 그 위에 대학이 있습니다. 통계청 KOSIS 북한통계의 학교 수 지표에서 북한의 대학교는 2024년 490개교로 제시됩니다.[1] 다만 이 숫자는 통계표의 값이며, 대학의 종류와 규모는 남한의 '대학' 분류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북한 대학생도 우리처럼 전공을 배우고, 진로를 고민하고, 친구를 사귑니다. 학교 교육에는 체제의 이념 교육이 함께 들어 있으며, 무엇을 배우고 어디서 일할지를 개인이 고를 수 있는 폭은 남한보다 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역 CCC에서는 북한의 대학 하나를 정해 꾸준히 기도로 품는 '입양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3] NK사역부는 이 '북한 대학 입양'을 넓혀, 통일 이후에는 입양한 대학 앞에 북한청년센터를 세우자는 비전을 제안합니다. 평일에는 북한 청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교육 센터로, 그 대학의 CCC 모임 공간으로, 주일에는 교회로 쓰이는 곳입니다. 한국교회와

짝을 이루어 세우고, 각자 전공을 가진 남한 청년과 순장, 통일봉사단이 그곳에서 섬기는 그림입니다.

그 날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남한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탈북민 이웃과 함께하는 남한형 북한청년센터를 시도해 보고, 거기서 배운 것을 통일 이후의 센터로 가져가려는 계획입니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여러분이 그 첫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이사야 58:6-12**
> 흉악의 결박을 풀고 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누면, 너는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 **예레미야 29:7**
> 너희가 있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내가 북한의 대학생이라면, 대학 앞 센터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기를 바랄까요?
2. 이사야 58장의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는 북한청년센터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3. 남한에서 먼저 모델을 만들어 보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워크시트 8 · 우리 순이 품는 대학

우리 순(지역)이 기도로 품는 북한 대학

그 대학에 대해 알게 된 사실(출처와 함께)

그 대학 청년들을 위한 기도 제목 3가지

그 대학 앞 센터에서 내가 맡고 싶은 일

한 걸음

우리 순이 품는 북한 대학을 위해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1분씩 기도해 보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북녘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의 배움과 진로와 우정을 지켜 주시고, 언젠가 그 대학 앞에서 그들과 함께 배우고 예배하는 날을 주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우리 순이 기도로 품는 북한 대학 이름(담당 간사에게 확인)

이끄는 방향 490개교는 통계표의 값이며 실제 대학 목록이나 사역 가능한 대학 수가 아닙니다. 센터 비전은 제안 단계의 계획입니다. 이사야 58장의 '보수하는 자'는 먼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며, 오늘의 섬김에 적용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예레미야 29장 → 토의 3번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우리 순이 품는 대학을 위한 기도 제목 하나는?

1)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교육제도」(2026년 10월 작성, 『2026 북한 이해』 p.338).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menuId=CL400 (접속 2026-11-20)

통계청 KOSIS 북한통계, 학교 수 지표(2019~2024년 표시값 모두 490개교). 개별 대학 목록을 확인한 수치는 아닙니다.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do?num=28&menuId=M_01_02 (접속 2026-11-20)

2)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탈북민 대상 2013~2022년 조사). 북한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실시간 관찰은 아닙니다. https://www.unikorea.go.kr/web/books/bbs/bbs_0000000000000043/47387 (접속 2026-11-20)

3) 죠이헤럴드, CCC NK사역부 제공 기도제목 보도, 2026년 4월 26일. https://www.joyherald.net/news/articleView.html?idxno=311 (접속 2026-11-20). 사역부 제공 자료이며 해당 대학과의 협약을 뜻하지 않습니다.

UNIT 09

같은 말, 다른 말 — 남북의 언어와 문화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70년 넘게 따로 살아온 시간만큼 말과 문화도 달라졌습니다.

학습 목표

- 남북 언어의 차이(어휘, 외래어, 말투)를 예로 설명할 수 있다.
- 문화 차이에서 오는 오해를 줄이는 소통 방법을 익힌다.
-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간문화 감수성을 기른다.

여는 질문

다른 지역 사투리 때문에 웃었거나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읽기 함께 읽는 글

남과 북은 같은 한국어를 쓰지만, 오랜 분단 동안 어휘와 표현이 꽤 달라졌습니다. 남한은 외래어를 많이 받아들였고, 북한은 고유어로 바꾸어 쓰는 말이 많습니다. 아래 표는 자주 소개되는 예입니다.

말의 차이보다 더 큰 것은 소통 방식의 차이입니다. 직설적인 표현이 무례하게 들리기도 하고, 반대로 남한식의 돌려 말하기가 진심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추병완(2014)은 서로 다른 체제에서 사회화된 남북 주민이 만난다는 조건에서 '간문화 역량'을 통일교육의 목표로 제시했습니다.[1] 문화가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은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알아듣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행 2장).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과 문화를 지우지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바울도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상대의 말을 배우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사랑의 표현입니다.

탈북민 친구의 말투를 따라 하며 웃거나 '그건 북한 말이잖아' 하고 고쳐 주려 하기보다, 그 말이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세요. 그 질문이 대화를 열어 줍니다.

북한에서 쓰는 말	남한에서 쓰는 말	쓰임
곽밥	도시락	
남새	채소	
손전화	휴대전화	
일없다	괜찮다	'걱정 없다'는 안심, '괜찮습니다'라는 사양의 상황에서 모두 쓰임
살결물	화장수(스킨)	
동무	친구	친구라는 뜻 외에 또래·동료를 부르는 호칭으로도 쓰임

자주 소개되는 예입니다. 지역·세대에 따라 쓰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사도행전 2:1-11**
> 오순절, 각 사람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다.

> **고린도전서 9:19-23**
>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다.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말의 차이와 소통 방식의 차이 가운데 어느 쪽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까요?
2. 내가 무심코 쓰는 외래어나 줄임말 가운데 북한에서 온 친구가 알아듣기 어려울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3.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워크시트 9 · 우리말 사전 만들기

내가 자주 쓰는 말 (외래어·줄임말)	쉬운 우리말로 풀면	북한에서 온 친구에게 설명한다면
예) 오리엔테이션		

한 걸음

이번 주 순모임 공지나 단톡방 글을 외래어·줄임말 없이 한 번 써 보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오순절에 각 사람의 말로 말씀하신 성령님, 우리가 다른 말과 문화를 가진 이웃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차이를 웃음거리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배우게 하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어휘 카드(북한말/남한말), 지난주 순모임 공지문

이끄는 방향 어휘표는 자주 소개되는 예이며 지역·세대에 따라 쓰임이 다릅니다. '일없다'는 안심과 사양의 뜻이 함께 있어 상황을 봐야 합니다. 차이를 웃음거리로 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고린도전서 9장 → 워크시트는 2줄만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다음 공지문에서 바꿔 쓸 외래어 하나는?

---

1) 추병완, 「통일교육에서의 간문화 역량 계발」, 『윤리교육연구』 제33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pp. 353-373.

PART 4

전공으로 준비하는 통일

통일을 '왜'에서 '무엇을'로 옮깁니다. 지식·기술·태도로 이루어진 통일역량을 이해하고, 내 전공으로 북한청년센터에서 섬길 준비 계획을 세웁니다.

10 통일의식에서 통일역량으로

11 전공별 준비 지도

12 북한청년센터와 나의 자리



UNIT 10

통일의식에서 통일역량으로

'왜 통일해야 하는가'에서 '어떤 통일이 오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로 질문을 옮깁니다.

학습 목표

- 통일역량을 지식(Knowledge)·기술(Skill)·태도(Attitude)의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여러 통일 시나리오에서도 남는 생활 과제(보건, 교육, 법률, 경제 등)를 이해한다.
- 1주차에 쓴 통일역량 점검표를 다시 보며 중간 성찰을 한다.

여는 질문

통일이 내일 온다면, 나는 그 다음 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읽기 함께 읽는 글

통일교육은 오랫동안 '통일이 왜 필요한가'를 설득하는 데 힘을 쏟아 왔습니다. 그 노력은 의미가 있었지만, 학습자가 자기 전공으로 통합 현장에서 무엇을 맡을지에 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1] 이 교재는 질문을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오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통일의 길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급작스러운 변화일 수도, 합의에 따른 단계적 통일일 수도, 교류가 먼저 넓어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든 남북 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만나면 보건·의료, 교육, 행정, 법률, 경제, 사회복지 같은 과제가 생깁니다. 두 국가가 오래 공존하더라도 탈북민 정착 과제는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나리오가 올까'를 맞히기보다 '각 상황에서 내가 맡을 역할'을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 교재는 통일역량을 세 가지가 결합된 수행 능력으로 봅니다. **지식**은 북한의 제도·사회·주민 생활을 내 전공의 눈으로 비교하고 이해하는 힘입니다. **기술**은 남한과 다른 여건에서도 실제로 일을 해낼 수 있는 실무 능력입니다. 장비와 약품이 부족한 곳에서 진료하는 의료인, 낡은 전력망과 상하수도를 진단하는 공학도가 그 예입니다. **태도**는 북한 주민을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이웃으로 대하는 환대와 존중입니다.

세 가지는 따로 놀지 않습니다. 북한을 잘 알고 기술이 뛰어나도 환대의 태도가 없으면 현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고, 마음이 따뜻해도 실력이 없으면 실제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통일봉사단은 이 셋을 함께 갖춘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출애굽기 31:1-6**
> 하나님이 브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어 성막을 짓게 하셨다.

> **느헤미야 3:28-30**
> 각 사람이 자기 집 맞은편 성벽을 보수했다.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브살렐의 '재주'는 오늘 나의 전공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2. 느헤미야 3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집 맞은편'을 맡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맞은편 성벽'은 어디입니까?
3. 지식·기술·태도 가운데 내가 가장 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워크시트 10 · 통일역량 중간 성찰 (1주차 점검표와 비교)

영역	점검 문장	1 ← 2 · 3 · 4 → 5
지식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 전공 분야의 북한 현황을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북한 관련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술	내 전공 기술을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맞게 바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문화권 사람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탈북민 이웃과 함께 실제 문제를 풀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영역	점검 문장	1 ← 2 · 3 · 4 → 5
태도	북한 주민을 동등한 이웃으로 대하는 말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통일을 위해 꾸준히 기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 = 전혀 아니다 · 5 = 매우 그렇다

한 걸음

중간 성찰 결과를 1주차 점검표(교재 앞쪽 '과정을 시작하며')와 비교해 소그룹에서 나누세요. 과정이 끝나면 부록 A에서 한 번 더 체크합니다.

함께 드리는 기도

브살렐에게 지혜와 재주를 주신 하나님, 우리 각자의 전공과 재능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데 쓰이게 하소서. 알고, 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1주차에 쓴 통일역량 점검표, 색이 다른 펜

이끄는 방향 통일역량은 지식·기술·태도의 결합입니다. 점검표는 자기보고라 점수 자체보다 '어디가 약한지 알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1주차와 다른 색으로 체크해 비교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느헤미야 3장 → 토의 2번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지식·기술·태도 가운데 남은 두 주 동안 키울 하나는?

---

1) 김진환, 「한국 정부의 통일교육: 역사, 현황, 방향」, 『통일과 평화』 제13집 제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pp. 433-479. 지식·기술·태도 틀은 동준희, 「통일의식에서 통일역량으로」(기독청년 통일포럼 발제문, 2026)를 따름.

UNIT 11

전공별 준비 지도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 통일 현장에도 여러 전공이 필요합니다. 내 전공의 자리를 찾아봅니다.

학습 목표

- 전공 분야별로 통일 이후(또는 남북 교류 국면)에 생길 수 있는 과제를 이해한다.
- 내 전공에서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지식·기술·태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 같은 전공의 동료와 함께 준비하는 '전공 소모임'을 구상한다.

여는 질문

내 전공을 처음 택했을 때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 이유가 통일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읽기 함께 읽는 글

고린도전서 12장은 몸에 많은 지체가 있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통일 현장도 그렇습니다. 신학이나 북한학을 전공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의료, 교육, 공학, 경영, 법, 사회복지, 문화예술, 농업, IT, 모든 전공이 필요합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미 대학 차원의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는 남북 보건의료 체계의 차이와 건강 격차에 대비한 통일 보건의료 열린강좌, 리더십 아카데미, 의예과 통일의료 강의 같은 교육이 소개되어 있습니다.[1] 다른 전공에서도 이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 지도는 전공별로 생각해 볼 만한 과제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를 정리한 것입니다. 정답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학생 봉사자는 교육·안내·학습 보조를 맡고, 진료·심리상담·법률 상담처럼 자격이 필요한 일은 담당 간사를 통해 전문가와 연결합니다. 여러분의 전공에 맞게 고치고 더해 가세요. 북한청년센터에서 섬길 때 이 준비가 곧 프로그램이 됩니다.

혼자 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전공의 순장과 청년이 한 학기 동안 '내 전공이 북한 지역과 탈북민 정착 현장에서 마주할 과제'를 함께 정리하는 소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봉사도 전공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탈북 청소년의 학습 지도, 취업·건강 상담처럼 전공과 닿는 활동을 고르고, 그 경험을

지식·기술·태도로 나누어 기록하면 훌륭한 준비 기록이 됩니다.

지도 전공별 준비 지도

전공	통일 현장에서 마주할 과제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센터에서의 섬김(예)
보건·의료·간호·약학	의료 체계와 장비·의약품 여건의 차이, 감염병 대응, 건강 격차	북한 보건의료 현황 학습, 자원 제한 환경 진료 사례 공부, 통일 보건의료 강좌 수강	센터 건강 교육 (전문 진료·상담은 의료인 연결)
교육·사범	학제와 교육 내용의 차이, 학습 공백, 교사 재교육	남북 교육과정 비교, 탈북 청소년 학습 지도 봉사	센터 학습 지도·진로 교실
공학·건축·도시	전력·상하수도·주거 등 기반 시설 진단과 보수	북한 인프라 관련 공개 자료 학습, 적정기술 프로젝트 참여	센터 공간 관리·적정기술 교실
경영·경제·회계	시장 전환, 창업과 일자리, 금융 이해	북한 경제 구조 학습,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사례 연구	센터 카페 운영 지원·창업 교실

전공	통일 현장에서 마주할 과제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센터에서의 섬김(예)
법·행정·정치외교	남북 법제 차이, 가족관계·재산, 지역 행정	남북 법제 비교 학습, 탈북민 법률 상담 현장 견학	생활 법률 정보 안내(법률 상담은 전문가 연결)
사회복지·상담·심리	정착 과정의 상실과 스트레스, 가족 재결합, 돌봄	트라우마 이해 교육, 탈북민 지원 기관 봉사	멘토링·생활 동행(전문 심리상담은 자격 있는 상담가 연결)
문화·예술·미디어	문화 차이 해소, 공동체 형성, 정보 접근	남북 문화 비교, 함께 만드는 문화 프로그램 기획	센터 문화 교실·공연·사진 수업
농업·환경·식품	식량 생산과 토양·산림 회복	북한 농업·산림 관련 공개 자료 학습, 도시농업 체험	센터 텃밭·식생활 교실
IT·컴퓨터	디지털 격차, 정보 활용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봉사, 교육용 앱 기획	센터 컴퓨터·코딩 교실

전공	통일 현장에서 마주할 과제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센터에서의 섬김(예)
신학·선교·기독교교육	신앙 공동체 형성, 화해와 평화 교육	기독교 평화교육 학습, 탈북민 교회 예배 참여	센터 예배·성경공부·CCC 모임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고린도전서 12:12-27**
>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 **베드로전서 4:10**
>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전공 지도에서 내 전공의 칸을 읽고, 빠졌거나 고쳐야 할 내용을 더해 봅시다.
2. 우리 순에 있는 전공들을 모으면 북한청년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열 수 있을까요?
3. 내 전공으로 이번 학기에 할 수 있는 봉사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워크시트 11 · 내 전공 준비 계획

내 전공

통일 현장에서 내 전공이 마주할 과제

지금 쌓을 지식 (읽을 자료·수강할 과목)

지금 익힐 기술 (실습·봉사·자격)

지금 기를 태도 (만남·기도·공동체)

함께할 전공 소모임 동료

한 걸음

같은 전공(또는 비슷한 분야) 동료 한 명을 찾아 '전공 소모임'을 제안해 보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전공이 나만을 위한 스펙이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몸의 여러 지체가 함께 일하듯 서로의 전공을 존중하게 하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참여자 전공 목록, 전공 소모임 신청지

이끄는 방향 완성 예시 · 간호학 전공: 과제 = 의약품이 부족한 곳의 기초 건강 교육 / 지식 = 북한 보건의료 현황 자료 읽기 / 기술 = 자원 제한 환경 응급처치 교육 이수 / 태도 = 탈북 청소년 학습 지도 봉사로 만남 연습 / 동료 = 같은 과 순원 1명. 학생은 교육·안내를 맡고 진료·상담은 전문가에게 연결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베드로전서 4장 → 토의 3번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내 전공 준비 계획에서 이번 학기에 할 한 가지는?

---

1) 신희영·최민호·전지은·최소영, 『통일의학센터의 교육 사업을 통해 본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 전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UNIT 12

북한청년센터와 나의 자리

이 과정의 끝은 수료증이 아니라, 내가 설 자리를 정하는 결단입니다.

학습 목표

- 북한청년센터의 비전(남한 모델과 통일 이후 모델)을 설명할 수 있다.
- 통일봉사단의 정체성과 역할을 이해한다.
- 나의 3년 통일 준비 계획을 세우고 공동체 앞에서 나눈다.

여는 질문

3년 뒤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 그림 안에 통일이 들어 있습니까?

읽기 함께 읽는 글

NK사역부는 모든 사역의 초점을 '통일 이후 북한 청년사역 준비'에 맞추자고 제안합니다. 순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의 목표는 통일 이후 북한 현장에서 섬길 통일봉사단을 길러 내는 것이고, 그 섬김의 자리로 북한청년센터를 그립니다.

북한청년센터는 두 단계로 구상됩니다. 먼저 남한에서, 탈북민 이웃과 함께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1층에는 탈북민 이웃이 일할 수 있는 카페 '노스토스', 위층에는 평일 문화·교육 프로그램과 탈북민 청소년 멘토링, 강당에서는 주일 예배와 CCC 채플이 열리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입양한 북한 대학 앞에 같은 형태의 센터를 한국교회와 짝을 이루어 세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남한 모델의 계획 일정은 2028년 하반기 평일 프로그램 시범, 2029년 7월 정식 운영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함께 기도하고 준비해야 할 계획입니다.[1]

그 센터에서 섬길 사람은 특별한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 교재로 공부한 여러분, 각자의 전공을 가진 청년과 순장들입니다. 이사야 61장은 포로에게 자유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워크시트는 3년 계획서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학기, 올해, 그리고 3년 뒤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줄 알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처음에 체크했던 통일역량 점검표를 다시 체크해 보세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 과정이 남긴 열매입니다.

성경 함께 찾아 읽는 말씀

성경을 펴서 본문을 직접 읽으세요. 아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 **이사야 61:1-4**
>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다.

> **미가 6:8**
>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토의 함께 나누는 질문

1. 북한청년센터 그림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공간(카페, 교육실, 강당)은 어디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2. 통일봉사단은 '봉사 동아리'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3. 나의 3년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워크시트 12 · 나의 3년 통일 준비 계획서

	지식 (무엇을 알까)	기술 (무엇을 할 줄 알까)	태도 (어떤 사람이 될까)
이번 학기			
올해			
3년 뒤			

3년 뒤 북한청년센터(남한 모델)에서 내가 맡고 싶은 섬김

나눈 사람(순장·간사) _____ 함께 기도할 날 _____

한 걸음

3년 계획서를 순장 또는 담당 간사와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날짜를 정하세요.

함께 드리는 기도

황폐한 곳을 다시 쌓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일봉사단으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북한청년센터의 꿈을 우리 세대에 허락하시고, 그날까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함께 걷게 하소서.

진행자 메모

준비물 3년 계획서(워크시트 12), 부록 A 점검표, 파송 기도 순서

이끄는 방향 북한청년센터와 카페 노스토스, 뉴코리아교회와의 연합은 모두 제안 단계입니다. 결단은 강요하지 않고, 각자의 3년 계획을 존중합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의 사역을 말하는 본문이며, 그 사역에 참여하는 제자의 삶으로 적용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면 미가 6장 → 토의 2번 순서로 줄입니다.

마치며 확인 3년 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할 한 가지는?

---

1) 일정은 CCC NK사역부 사역 기본안(안, 2026-11) 3년 로드맵의 계획값이며 확정된 일정이 아닙니다. 뉴코리아교회와의 연합은 협의 전 제안입니다.

APPENDIX A

통일역량 점검표 (마침)

10단원에서 체크했던 문장을 다시 체크하고, 달라진 점을 적어 보세요.

영역	점검 문장	1 ← 2 · 3 · 4 → 5
지식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를 내 말로 설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내 전공 분야의 북한 현황을 한 가지 이상 말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북한 관련 정보의 출처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기술	내 전공 기술을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 맞게 바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른 문화권 사람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탈북민 이웃과 함께 실제 문제를 풀어 본 경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영역	점검 문장	1 ← 2 · 3 · 4 → 5
태도	북한 주민을 동등한 이웃으로 대하는 말을 쓴다.	① ② ③ ④ ⑤
	차이를 틀림이 아닌 다름으로 받아들인다.	① ② ③ ④ ⑤
	통일을 위해 꾸준히 기도한다.	① ② ③ ④ ⑤

1 = 전혀 아니다 · 5 = 매우 그렇다

가장 많이 달라진 문장과 그 이유

앞으로 더 자라고 싶은 영역

APPENDIX B

용어 풀이

용어	뜻
통일봉사단	통일 이후 북한 현장에서 섬길 것을 목표로 훈련받는 CCC 순장·청년 공동체. 이 교재 과정의 수료자가 들어가는 자리(제안).
북한청년센터	통일 이후 입양한 북한 대학 앞에 한국교회와 짝을 이루어 세우려는 센터. 평일 문화·교육 센터, CCC 모임 공간, 주일 교회로 쓰임(제안). 남한에서 먼저 모델을 시도함.
북한 대학 입양	북한의 대학 하나를 정해 꾸준히 기도로 품는 일. 지역 CCC의 입양 기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넓혀 통일 이후 그 대학 앞 센터를 섬길 사람과 교회를 준비하자는 것이 NK사역부의 제안.
노스토스 (nostos)	그리스어로 '귀향'. 고향 북한으로 돌아가는 길과 그리스도인이 본향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두 뜻. 센터 1층 카페 이름(제안).
통일역량	어떤 통일 경로에서도 필요한 지식(Knowledge)·기술(Skill)·태도(Attitude)가 결합된 수행 능력.
간문화 역량	문화가 다른 사람과 서로 존중하며 함께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용어	뜻
시혜와 환대	시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고정된 관계, 환대는 서로를 동등한 이웃으로 맞아들이는 관계.
북한이탈주민	법률(「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로 정의된 용어. 이 교재에서는 주로 남한에 정착한 북한 출신 이웃을 가리키며, 일상에서는 '탈북민'으로도 부름.

APPENDIX C

함께 읽을 자료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분을 위한 목록입니다. 이 교재의 출처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인용한 자료 (확인일 2026-11-20)

- 김진환. 「한국 정부의 통일교육: 역사, 현황, 방향」. 『통일과 평화』 제13집 제2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1, pp. 433-479. (10단원)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803446
- 동준희. 「통일의식에서 통일역량으로: 통일교육의 전환과 한국교회와 CCC의 역할」. 기독청년 통일포럼 발제문, 2026. (10단원, 지식·기술·태도 틀)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6 통일의식조사 보도자료, 2026-09-28. (1단원) 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176276
- 신희영·최민호·전지은·최소영. 『통일의학센터의 교육사업을 통해 본 통일의료 인적자원개발 전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통일평화연구원, 2019 통일기반구축사업 결과보고서. (11단원)
- 추병완. 「통일교육에서의 간문화 역량 계발」. 『윤리교육연구』 제33집. 한국윤리교육학회, 2014, pp. 353-373. (9단원)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1872717
- 한지은·나건.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적응력 향상 방안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5(2).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7, pp. 27-33. (6단원) https://www.kci.go.kr/kciportal/landing/article.kci?arti_id=ART002201431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입국 현황·현재 연령별 현황·지역별 거주 현황('26.6월말). (6단원) https://hanaportal.unikorea.go.kr/hanaportal/Institution/Archive/?boardId=bbs_0000000000000008&mode=view&cntId=65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교육제도」(2026년 10월 작성). (8단원) https://nkinfo.unikorea.go.kr/nkp/pge/view.do?menuId=CL400
-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탈북민 대상 2013~2022년 조사). (5·8단원) https://www.unikorea.go.kr/web/books/bbs/bbs_0000000000000043/47387
- 통계청 KOSIS 북한통계. 학교 수 지표. (8단원) https://kosis.kr/bukhan/nkStats/nkStatsIdctChart.do?num=28&menuId=M_01_02
- YTN. 「北 김정은 '남북은 동족 아닌 적대관계…남한 영토 평정 준비 박차'」, 2023-12-31. (4단원) https://www.ytn.co.kr/_ln/0101_202312311500047109
- 죠이헤럴드. CCC NK사역부 제공 기도제목 보도, 2026-04-26. (8단원) https://www.joyherald.net/news/articleView.html?idxno=311

더 읽을 자료

- 김범수·김병로·장용석·김영호·이유철·이성우·조현주. 『2025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64. 시흥: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5.

- 이상신·민태은·이무철·윤광일·구본상·박주화.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요약보고서(Executive Summary)』. 서울: 통일연구원, 2025.
- 유재덕. 「한반도 문제와 기독교 평화교육」. 『기독교교육논총』 제37집.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14, pp. 145-166.
- 이경희·배성우.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통일정책연구』 15(2). 통일연구원, 2006, pp. 1-28.
- 이창식·황연경. 「청소년 통일역량 설문문항 개발 및 효과검증」. 『통일문제연구』 제28권 제2호. 평화문제연구소, 2016, pp. 31-60.
- 「통일교육 지원법」(법률 제21502호, 2026. 3. 31. 일부개정, 2026. 10. 1. 시행) 제2조 제1호.
- Haas, Ernst B. The Uniting of Europ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Forces, 1950-1957.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 McClelland, David C. "Testing for Competence Rather Than for 'Intelligence'." American Psychologist 28(1), 1973, pp. 1-14.
- Mitrany, David. A Working Peace System. London: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43.
- OECD.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Paris: OECD,

2005.

CCC NK 사역부

이 교재는 함께 나눕니다

CCC NK사역부 후원교회에는 이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 간사가 직접 찾아가는 강의를 함께 드리려 합니다(제안).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한 달 5만 원으로 북한 청년의 내일을 준비하는 동역자가 되어 주세요.

이 자료는 CCC NK사역부의 비전 제안을 위해 만든 시안입니다. 내용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본문은 각자의 성경에서 직접 찾아 읽도록 장절만 표기했습니다.